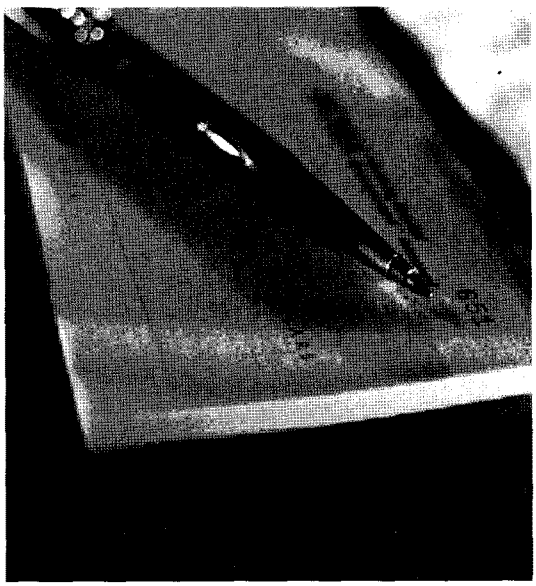
실질성장 4.9%↓ 2년 연속 하락, 장기적 하향세 뚜렷

총 41,160백만$, 명목 2.5%↑ · 실질 4.9%↓ 1990중반부터 하향 추세
11개 선두사 중 9개사 성장, 2개사는 하락, 스미토모 '뉴팜 지분' 매입 주목



2010년 세계 농약시장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41,160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나 실질성장률은 인플레이션과 환율변동의 여파로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계의 2년 연속 실제 하락세이며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장기적인 하향 추세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농약 산업계는 2004년과 2007년 및 2008년 등 오직 세 번의 실질적인 성장세가 있을 뿐이다. 2010년도 농약시장의 실질성장은 2005년보다 낮은 3.0%였고 2000년도 보다 낮은 12.1%였다.

전 세계 농약시장은 1970년부터 1990년 중반에 최고조에 달하였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1996년 전 세계 판매액은 32,350백만 달러로 이후 10년간 여러 요인의 결과로 하향세를 보였다. 농산물 가격은 과잉 생산에 따른 곡물재고 증가로 최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에 유전자변형 작물이 주목받으면서 특정 농산물 분야의 제초제 및 살충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위축된 농업 경제, 주기적인 경제위기, 불리한 기후조건 및 제네릭(generic)의 경쟁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단기간 성장은 2004년에 달성되었는데 브라질의 콩 녹병 살균제 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판매액은 2년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가 2007 및 2008년에 재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탄력성이 있는 농업 부문인

■ 2005년 이후 세계 농약시장 변화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명목시장 매출액(백만$)	32,867	32,162	36,183	43,989	40,162	41,160
전년도 시장매출액(백만$)	32,349	32,867	32,162	36,183	43,989	40,162
명목성장률	+1.6%	-2.1%	+12.5%	+21.6%	-8.7%	+2.5%
무역 가중 인플레이션	+3.3%	+2.9%	+3.2%	+5.4%	+2.0%	+3.6%
무역 가중 환율영향[1]	+3.5%	+1.6%	+5.0%	+3.3%	-4.7%	+4.0%
실질성장률[2]	-5.0%	-6.4%	+3.8%	+11.7%	-6.0%	-4.9%
실질시장가치(백만$)[3]	42,430	39,714	41,232	46,049	43,272	41,160

1. 달러 강세 시 Negative 2. 실질성장=명목성장/(인플레이션×환율), 3. 2010 달러 기준

■ 2000-2010 농약시장 변화

구 분	2000-2010(10년)	2005-2010(5년)	2009-2010(1년)
명목성장률	3.5%	4.6%	2.5
실질성장률	-1.3%	-0.6%	-4.9%

바이오연료의 높은 수요와 상품 가격 및 농약 가격의 원만한 상승, 특히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 등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에 따른 것이다.

2010년 전 세계 금융 위기의 시작은 신흥시장의 심각한 금융 긴축을 유도하였고 불리한 기후, 작물가격의 약세 그리고 낮은 판매가격 모두가 4.9%의 실질성장율의 위축된 시장결과를 낳았다.

2010회사별 현황

2010년 초반 약세를 회복한 2/4분기의 물량 반등으로, 전 세계 농약산업은 원만한 판매액 회복을 달성했다. 11개의 선두 회사 중 9개 사는 매출 성장을, 나머지 2개사는 매출 하락을 보였다. 달러화 판매액 실적은 18%(FMC)에서 -14.9%(몬산토)까지 다양한 범위를 나타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수 합병으로는 스미토모 화학의 뉴팜 지분의 20% 매입이었다. 막테심 아간(Makhteshim Agan)의 'Albaugh' 인수 제안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대신 막테심 아간의 지분 60%가 캠차이나(ChemChina)에 매각되었으며 거래는 2011년 중반쯤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외 주요 합병은 소규모의 사업권 또는 품목에 관계되었다.

선두 11개 회사의 판매액 변동은 극히 적었다. 일부 변동사항을 보면 에프엠씨(FMC)사가 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Arysta LifeScience)를 추월하여 10위에 올랐다.

신젠타(Syngenta) 판매액 격차를 넓혀 업계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가장 가까운 경쟁회사인 바이엘크롭사이언스(Bayer CropScience)와 738백만 달러의 격차를 냈다(전년도는 격차는 142백만달러).

바이엘크롭사이언스(Bayer CropScience) 동등한 위치의 경쟁사와 비교시 낮은 실적을 냈

■ 2010 회사별 농약매출

회 사	2009		증감		2010	
	현지화(백만)	달러화(백만)	현지화	달러화	현지화(백만)	달러화(백만)
신젠타	$8,491	$8,491	4.6%	4.6%	$8,878	$8,878
바이엘	€6,007	$8,349	2.3%	-2.5%	€6,143	$8,140
바스프	€3,646	$5,067	10.6%	5.5%	€4,033	$5,344
다우	€3,905	$3,905	5.2%	5.2%	€4,107	$4,107
몬산토	€3,425	$3,425	-14.9%	-14.9%	€2,915	$2,915
듀폰	€2,415	$2,415	4.0%	4.0%	€2,511	$2,511
마케심-아간	€2,042	$2,042	6.8%	6.8%	€2,180	$2,180
뉴팜	A€2,303	$1,798	-8.1%	8.1%	A€ 2,116	$1,943
스미토모	¥131,152	$1,402	7.0%	14.1%	¥140,304	$1,599
에프엠씨	$1,052	$1,052	18.0%	18.0%	$1,242	$1,242
아리스타	¥101,719	$1,087	0.9%	7.6%	¥102,683	$1,170

현지 판매액 및 달러 환산 금액

고, 달러화 판매액이 낮은 두 회사 중 한 회사였다. 곡물 분야에서의 판매부진이 전체 실적의 주 요인이었다

바스프(BASF) 독일의 또 다른 주요 회사로서 비교적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수요 및 제초제 'Kixor(saflufenacil)' 의 성공적인 출시로 달러화 판매액을 크게 증가시켰다.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Dow AgroSciences) 최근 출시된 제품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업계 평균 판매액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

몬산토(Monsanto) 주요 선두 기업 중 가장 낮은 실적과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유일한 회사였다. 이는 불리한 기상조건에 따른 수요 감소, 지속적인 판매가격의 하락의 결과로 1/4분기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의 추가 감축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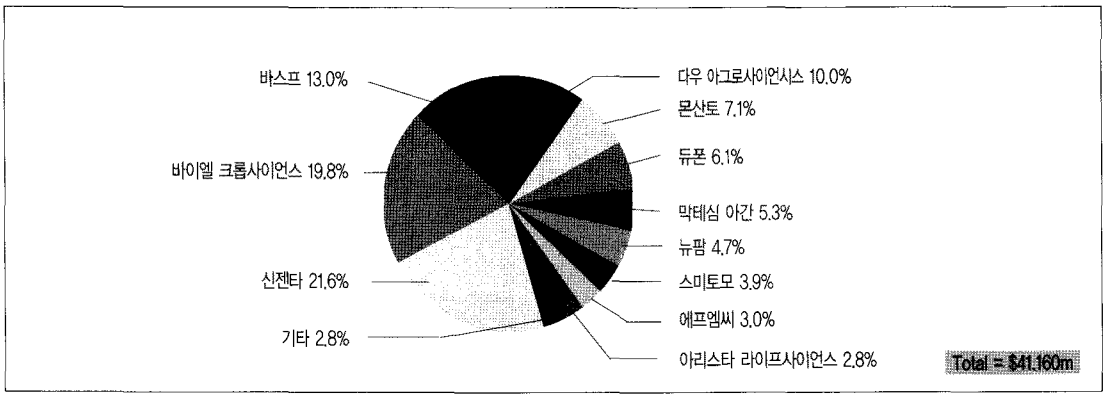
듀폰(DuPont) 기업의 매출 성장을 다시 한 번 달성했다. 살충제 Rynaxypyr(Chlorantraniliprole)의 추가적인 성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살균제 판매액 확대는 제초제 판매 감소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막테심 아간(Makhteshim Agan) 제네릭(Generics)의 선두 회사로서 가격 압박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특히 신흥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 성장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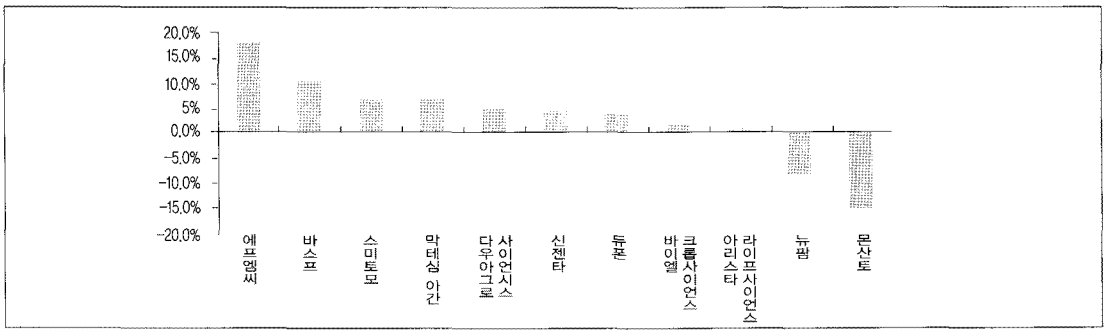
뉴팜(Nufarm)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의 판매 약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더 높은 달러화 실적을 낸 회사로 위치를 점하였다. 오스트리아의 판매 급등이 주요 요인으로써 기상의 호전은 수요를 증가시켰고 긍정적인 환율 변동은 시장가치를 상승시켰다.

스미토모화학(Sumitomo Chemical) 매출액 성장은 선두 회사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북아메리카에서의 선택성 제초제에 대한 많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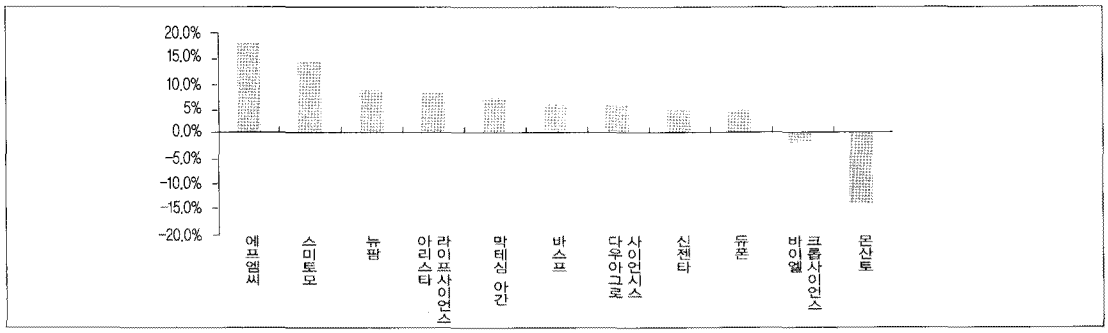
■ 2010 선도 회사별 시장 점유율



■ 2010 회사별 판매변화(지역통화기준)



■ 2010 회사별 판매변화(미국달러기준)



요가 주된 요인이었다.

에프엠씨(FMC)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모든 지역과 품목에 대한 판매액이 증가하였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

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Arysta LifeScience) 비록 전 세계 농약산업계 판매액 순위에서 한 계단 하락하였으나, 북미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대규모 성공적인 사업으로 비교적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추측된다. ㈜